

해남군 “우주에서도 보이는 꽃단지 조성”

황산면 일원에 246만평 규모 꽃단지 조성 사계절 관광자원 활용 계획...내년부터 착수

해남군 황산면 일원에 세계적인 규모의 꽃단지가 조성된다. 꽃단지 대상지는 황산면 연호리 난간이 농원 0.56㎢(17만평)을 시작으로 연호지구, 우항리지구, 연기도 일원까지 7.57㎢(229만평)에 이르고 있다. 우주에서도 볼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전국 최대 경지면적을 가진 해남의 특성을 살려 유류지 등을 꽃단지로 조성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꽃단지 조성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

하는 방식으로 토양과 기후조건에 맞고, 주민 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해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달 27일 대규모 꽃단지 조성사업 용역에 따른 워크숍을 갖고, 사계절 꽃을 피울 수 있는 작물 선정과 주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경관 조성, 주민의 소득보전 방법, 경관농업과 경관관광에 대한 방향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지난해 10월 경관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황산면 연호리 일원을 사업대상지를 선정, 11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가진 해남의 특성을 살려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꽃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공산업과 관광산업, 체험 및 숙박 등을 종합해 해남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농특산물 판매기획전 개최

13일까지 현대백화점 일산 킨텍스점서 곱창김 등 10여종 판매

진도군이 3월 6~13일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일산 킨텍스점'에서 진도군 농수특산물 판매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특판전은 진도 곱창김 등 대표 수산물을 비롯해 반건조 마른 생선, 전복 장조림 등 우수 농특산물 10여종을 판매한다. 관내 3개 업체가 참여해 엄선된 주력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더 질 높은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스낵김, 맛김, 전복포 등 선물세트를 선보여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현

대백화점 천호점에서 기획전을 개최했으며, 오는 3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점에서 기획전을 예정되어 있어 진도군 우수 농·특산물의 브랜드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진도군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대형유통업체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 유통업체 기획전을 통해 진도군 농수특산물 우수성이 홍보되고 유통채널 다각화 추진으로 농수특산물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체류형귀농사관학교 본격 운영 입교식 개최...예비귀농인 12세대 9개월 맞춤형 현장 교육

강진군은 지난 4일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입교식은 입교생 가족, 귀농 선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운영 계획, 입교생 소개, 자치회 구성 그리고 선후배 간담회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선후배 간담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 귀농사관학교를 수료하고 강진으로 귀농한 선배 농가 3명이 참석해 신규 입교생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딸기를 재배하는 최

준호씨는 생산물의 유통, 연구회 및 법인 가입 등 직접 경험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입교생들은 귀농을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각지에서 신청한 도시민 12세대로 앞으로 9개월 동안 강진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우선 3월에는 총 14번의 주작목 배움 교실을 통해 작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4월부터는 멘토-멘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배기술과 영



농 노하우, 주변 농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귀농 후 영농정착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이상심 부군수는 “9개월 동안의 체류형귀농학교 교육들을 통해 작목 재

배기술을 익히고, 농촌의 정서,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여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새롭게 단장한 유치자연휴양림서 힐링하세요”

400여 종 온난대식물 분포 천연원시림



장흥군 장흥읍 상류에 위치한 유치자연휴양림은 편백나무, 비자나무, 굴피나무, 나도밤나무, 합다리나무 등 400여 종의 온난대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천연원시림이다. 신선한 공기와 피톤치드 방향성

물질이 풍부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산림휴양과 레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전설이 깃든 변강쇠 바위, 웅녀 바위 등 웅장한 기암괴석과 웅녀봉에서 내려오는 무지개폭포, 웅녀폭포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계곡물이 남도의 풍광과 향취를 즐기려는 휴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장흥군에서는 20년 이상 된 낡고 묵은 냄새가 났던 숲속의 집을 현대화된 시설로 바꾸고 숲속캠핑장, 탐방로 등 대대적인 시설 보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숲속의 집(3동) 개축과 캠핑데크(3개소) 신축, 구름다리 및 안전편의 시설을 확충했고, 올해

에도 넓은 숲속의 집(2동) 개축과 물놀이장과 화장실 보수, 옥녀폭포 안전데크 설치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하고 지친 심신을 유치자연휴양림에서 숲속 힐링 여행을 통해 풀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족단위(소규모) 휴양객만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스스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자연휴양림은 1991년부터 조성 시작, 1996년 7월 개장하여 매년 8~10만 명의 휴양객이 찾고 있는 전남의 대표 산림휴양지로 숲속의 집(17동 20실), 오토캠핑데크(38개소), 야영장(1개소), 물놀이장(1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 성내·남성마을, 균발위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완도군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완도읍 성내·남성마을이 선정돼 총 사업비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3억원 확보
생활·위생 기반 시설
휴먼케어 사업 추진 예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다.

완도군은 앞으로 4년 동안 성내·남성마을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사업, 응

벽 정비, CCTV 설치, 하수도, 마을 공원, 안전도로 개설 등 생활·위생 기반 시설과 일자리·복지 지원하는 휴먼케어 사업을 추진한다.

김대근 성내·남성마을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목이 좁아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는데 안전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두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었는데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나해 항동마을에 이어 성내·남성마을이 선정된 것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얻은 성과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